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2024년 제110호
2024.06.20.(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통상** 미국, GAA·HBM 대상 對中 AI 반도체 기술 통제 등 검토
- 중국·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中 희귀금속 가격 지속 상승
- 미국·반도체** G7 반도체 공급망 그룹 창설...美, 對러 반도체 제재 확대 발표
- 중동·에너지** 중동, 석유화학 8개 시설 동시 건설 추진

주간 이슈 포커스

- EU·중·전기차** EU, 중국產 전기차에 최대 38% 관세 추가 인상...中 반발

원자재 뉴스 PLUS

- 리튬** 韓·카자흐스탄 공동 탐사 리튬 광산 생산 개시 예정

II. 월간 공급망



자연자본 지키기는 글로벌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필수요소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EU 그린딜 추진 현황 분석

IV. 공급망 소식통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물류 애로신고센터 운영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통상 美, GAA·HBM 대상 對中 AI 반도체 기술 통제 등 검토

6.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바이든 행정부는 GAA·HBM* 등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게이트 올 어라운드(Gate-All-Around, GAA):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 쓰이며 전류를 미세 조정하여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 여러 층을 쌓은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메모리 반도체

미국은 '22년 GAA 기술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부과했으며, 일부 동맹국들은 GAA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자체적으로 추진

美 산업안보국(BIS)의 초안은 중국의 자체 GAA 칩 개발 능력 제한 및 업체들이 中에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최종 규제 대상과 범위는 논의 중

전문가들은 동 규제가 GAA 기능을 가진 “해외 웨이퍼 팹을 대상으로 中 기반 고객을 위한 반도체 제조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언급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첨단반도체

출처: 블룸버그(24.06.12),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44호(24.06.1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중국,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中 희귀금속 가격 지속 상승

6.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텅스텐·몰리브덴·안티모니 등 희소금속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中 기업들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

* (몰리브덴) 6월 초 톤당 25만 위안 (연초 대비 18% 상승) / (텅스텐정광) 6.12일 기준 톤당 15.2만 위안 (연초 대비 25% 상승) / (안티모니괴) 6.11일 기준 톤당 15.25만 위안 (연초 대비 81% 상승)

탄소중립 전환에 따라 희귀금속 수요가 급증한 반면, 광산 채굴 인프라 부족 및 환경보호 정책 등으로 단기간 공급 부족은 심화할 전망

뤄양몰리브덴 등 中 대표 생산기업들은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및 채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장한다는 방침

핵심 키워드

희귀금속

공급망 안정화

출처: 중국증권보(24.06.12)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미국, 반도체 G7 반도체 공급망 그룹 창설...美, 對러 반도체 제재 확대 발표

- 6.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G7은 정상회담서 반도체 공급망 조정을 위한 '반도체 그룹(Point of Contact)' 창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반도체 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 해결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조치
- 한편 美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서 러-우 사태 대응 및 러시아의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조달 억제를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방안을 발표
- 기존 수출통제 및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美 기술로 제조한 반도체를 러시아에 판매하는 외국기업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업계 관계자들은 금번 규제 확대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

핵심 키워드

대러제재

반도체

출처: 블룸버그('24.06.12), 로이터통신('24.06.11), 연합뉴스('24.06.1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중동, 에너지 중동, 석유화학 8개 시설 동시 건설 추진

- 현재 중동에서 투자금 910억 달러 (약 123조 원)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COTC*) 8개 시설을 동시에 건설 중
- * COTC(Crude Oil To Chemical) : 원유에서 나프타 추출 후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원유에서 곧바로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방식
- COTC 방식으로 생산된 중동 에틸렌 단가는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 가동 중인 일부 공장의 생산 단가는 톤당 200달러 이하로 톤당 300달러 내외인 韓·中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
- 에틸렌 연간 예상 생산량은 1,123만 톤으로 LG화학 등 국내 주요 6개사 생산량인 1,090만 톤 상회
- 중동産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한 대비책 마련 필요
- 8개 프로젝트 완공 시점은 3~4년 후, 다운스트림 확장까지 5년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또한 존재해 단기 업황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핵심 키워드

석유화학

에틸렌

출처: 한국경제('24.06.1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중국, 전기차 EU, 중국産 전기차에 최대 38% 관세 추가 인상…中 반발

6.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産 전기차 대상 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과 및 상계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

- 집행위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에 의한 피해가 있다고 판정, 오는 7월부터 기존 수입産 차량에 부과하는 10% 관세에 최대 38.1% 추가 상계관세 부과 예정

상계관세 부과 계획 개요

배 경	 집행위는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잠정 결론 발표 * EU 內 중국産 전기차 시장점유율: ('19년) 1% → ('25년) 15%(추정)				
경 과	 EU 집행위 反보조금 조사 개시('23.10월) → 상계관세 부과 계획 발표('24.6월) → 관세 잠정 적용('24.7월) → 이사회 가중다수결* 투표 후 관세 확정('24.11월) * EU 27개 회원국의 55% 이상(최소 15개국),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찬성 시 가결				
세부 내용	구분	업체명	기본 관세	상계관세율	최종 관세율
	조사 샘플 대상 업체	BYD	10%	17.4%	27.4%
		Geely		20%	30%
		SAIC		38.1%	48.1%
	조사 협조·샘플 미대상 업체	Chery·GWM·NIO 등		21%	31%
	조사 비협조 업체			38.1%	48.1%
향후 절차	 7.4일까지 집행위는 잠정 상계관세 및 관련 근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관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발효  잠정 상계관세 부과 후 4개월 이내인 11.4일까지 反보조금 최종 결과 발표 및 확정 상계관세 전환여부 결정 예정				

중국의 대응

6.12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대변인 기자회견문을 통해 EU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6.17일 EU産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23년 돼지고기 수입액 35억 달러 중 EU産 수입 규모는 17억 달러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상계관세

출처: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4호('24.06.14)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워싱턴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리튬

韓·카자흐스탄 공동 탐사 리튬 광산 생산 개시 예정

6.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은 최근 韓 지질자원연구원과의 공동 탐사를 통해 확인된 리튬 광산의 생산을 시일 내에 개시할 수 있다고 언급

카자흐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최대 1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채굴된 리튬을 향후 완공될 韓 기업 자동차 배터리 공정에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조건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2주)

비철금속 | 주요 생산국 수출증대로 동 가격↓, 中 철강산업 규제 발표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5월	전년비(%)	6.1주	6.2주	전주비(%)
동	8,478	8,988	6.0	9,877	9,668	△2.1
니켈	21,474	17,505	△18.5	18,529	17,567	△5.2
아연	2,647	2,607	△1.5	2,860	2,758	△3.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美·中 무역갈등 지속, 주요국 동 수출증대 및 재고량 증가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동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수입량 증대 및 칠레 주요 광산 생산 부진으로 상기 하방압력 부분 상쇄

(니켈) 中 정부가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해 자국 철강산업이 '25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3년 대비 2% 삭감해야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니켈 가격 하방압력 발생

철강 | 中 철강산업 규제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5월	전년비(%)	6.1주	6.2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1.37	△24.2	137.18	134.81	△1.7
원료탄	295.71	281.46	△4.8	252.55	256.40	1.5
철광석	119.32	120.86	1.3	107.95	105.50	△2.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철광석) 中 철강산업 에너지소비 감소계획에 따른 원재료 수요둔화 우려로 철광석 가격 하방압력 발생

(유연탄) 中 경기부진 및 주요국 석탄발전 감소에 따른 하락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2주)

희소금속 |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페로망간 가격↓, 시장 수요 감소로 희토류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5월	전년비(%)	6.1주	6.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61	△8.2	1,440	1,440	-
탄산리튬	35,697	14,506	△59.4	14,081	13,527	△3.9
수산화리튬	37,972	13,091	△65.5	12,772	12,391	△3.0
코발트 (U\$/lb)	17.82	16.96	△4.8	16.67	16.55	△0.7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6,556	△16.3	264,700	260,500	△1.6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798	△30.1	52,140	50,850	△2.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코발트) 中 코발트 금속가는 中 국가물자비축국(SRB)의 비축소식에도 불구하고, 작년 中 코발트 생산 능력 확대로 공급과잉 상황 지속이 예상되며 전주 대비 가격 하락
- 🔲 (페로망간) 中 페로망간 가격은 공급업체가 수요업체의 6월 인도분 입찰가를 기다리며 현물 거래활동 감소에도 제안가를 유지하며 전주 가격 유지
- 🔲 (희토류) 산화 디스프로슘 및 산화 네오디뮴의 수출가는 원료비용 감소 및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전주 대비 가격 하락세 유지

에너지 |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전망, 후티 반군 선박 공격 지속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6.1주	6.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3.16	1.06	79.48	81.70	2.22
브렌트유	82.17	83.25	1.09	78.76	82.22	3.46
WTI	77.60	78.64	1.03	74.52	78.19	3.67

-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전망, ▲후티 반군 선박 공격 지속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美 원유 재고 증가 등은 상승폭 제한
- 🔲 석유수출기구(OPEC)은 6월 월간 보고서에서 '24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규모 전망을 225만 b/d로 유지
- 🔲 6.7일(현지시간) 기준 美 상업 원유 재고는 시장 예상과 달리 전주 대비 373만 배럴 증가

월간 공급망

◆ 자연자본 지키기는 글로벌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필수요소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ssurance ESG 그룹 심홍석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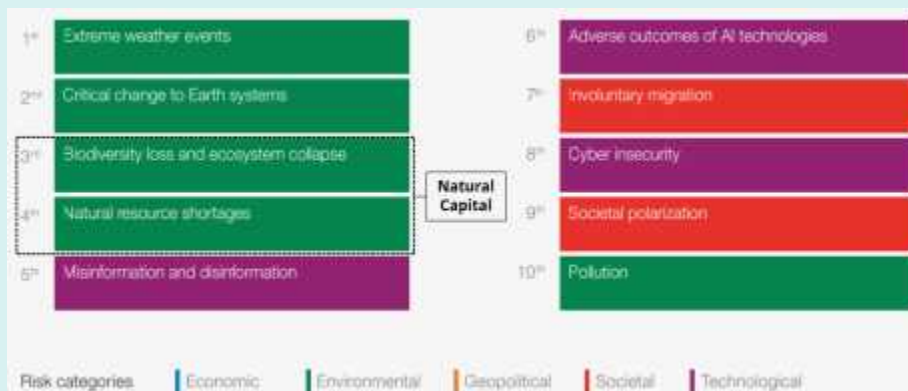
'24.4.30일 한국 금융위원회가 설립한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 초안에서는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의무 공시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KSSB는 한국의 ESG 공시 기준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가 발표(23.6월)한 기준서를 준용하면서 주변 국가인 EU, 미국 등의 공시 기준과의 상호운용성과 기업들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제정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ISSB의 기준서가 일반 공시 요구사항(IFRS S1)이외 세부 기준서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IFRS S2)을 우선적으로 발표한 점과,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공시 규칙을 확정(2024년 3월)한 사례를 바탕으로 KSSB의 ESG 기준 공개 초안은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한 의무 공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ESG 실무자 및 전문가들에게 ESG 트렌드에서 기후변화 다음의 핵심 주제는 어느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답변은 “인권”, “인적자본”, “공급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제의 답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본 기고문의 저자는 “자연자본이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답변으로 소견을 시작하고자 한다.

WEF(World Economic Forum)는 '24.1월 'The Global Risks Report 2024'를 발간하며, '34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하였다.



[자료원]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19th Edition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1위부터 4위까지가 환경에 관련된 리스크라는 것이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인 1위 및 2위를 제외하면, 3위인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와 4위인 자연자원 부족 등 “자연자본(Natural Capital)”과 관련된 리스크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이 자연자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만, 전 세계 정부협의체에서는 자연 손실을 막고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2월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190개 이상의 국가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른 야심찬 목표를 약속했다.

또한, ISSB, EU CSRD, 미국 기후공시 규칙 제정에 근간이 된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2017년 발표)에 이어, TNFD(Taskforce on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이 '23.9월에 발표되면서, '24.6월 기준 글로벌 기업 및 기관 236개가 FY 2024부터 158개는 FY 2025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자연 정책 개발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생물다양성 및 자연 정책 개발 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 경과
	1988 UN에 의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설립
	1990 제1차 IPCC 보고서 발간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1992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UN에 의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정부간 과학-정책 플랫폼(IPBES) 설립	2012
	2015 파리협약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 발족
	2017 TCFD 권고안 발표
제1차 IPBES 보고서 발표	2019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2022
과학기반 목표 네트워크(SBTN) 발족	
TNFD 권고안 발표	2023

[자료원] Deloitte, Putting nature and biodiversity loss the business agenda

자연 친화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재해석하고, 글로벌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30년까지 3억 9,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연간 10조 달러 규모의 자연과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많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계획을 실제 실천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 road map of how it will contribute to a nature-positive world” 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의 자연 전략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위험을 완화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지 않고서는 Global Net-Zero에 도달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연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가 상호 연계된 비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례는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하다.

자연 기반 솔루션	활동	자연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① 임업 활동	- 새로운 숲 조성 - 벌목된 숲 자연 재생을 위한 숲 관리 활동 개선	- 화재로부터 생명·재산 보호 - 토양 안정화 - 물 방류 자연에 따른 산사태 토사 방지	- 산림복원·산림 벌채 방지를 통해 '30년까지 필요한 기후 완화의 1/3을 제공
② 습지 관련 활동	- 이탄지습지 구역 보호 및 복원	- 가뭄에 의한 토양 훼손 방지 및 물의 흐름 조절 - 홍수 범람 시 물 흡수·여과 통한 자산 손실 및 수질 오염 방지	- 습지와 늪은 숲보다 2배 이상 많은 탄소를 저장
③ 복원 농업	- 무경운 농업 등 같은 토양 내 탄소 축적 활동 통한 혼농임업 및 가축 관리 개선	- 가뭄에 의한 흉작 및 가축 손실 방지 - 수확량 향상	- 토양 보전·비료 사용 감소 등 통해 연간 3~6기가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 - 혼농임업을 활용, 인구 식량 안보 강화 및 토양 침식 완화
④ 도시 기반 솔루션	- 녹지 공간 확장·다공성 표면 도입 및 수로 복원	- 집중 호우에 의한 도시 피해 완화 - 열섬 현상에 의한 열 스트레스 감소	- 도시 나무 심기에 연 1억 달러 투자 시 7,700만 명의 평균 기온을 섭씨 1도 낮출 수 있는 그늘 조성 효과
⑤ 해양 기반 활동	- 맹그로브 보호·해초 복원 - 다시마 및 조개류 재배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 해수면 상승·해안 침식에 의한 토지·자산 손실 감소 - 폭풍해일과 침수에 의한 인명 및 자산 보호	- 해초·맹그로브 등 해양 서식지는 육지의 숲보다 최대 4배 더 높은 비율로 이산화탄소 격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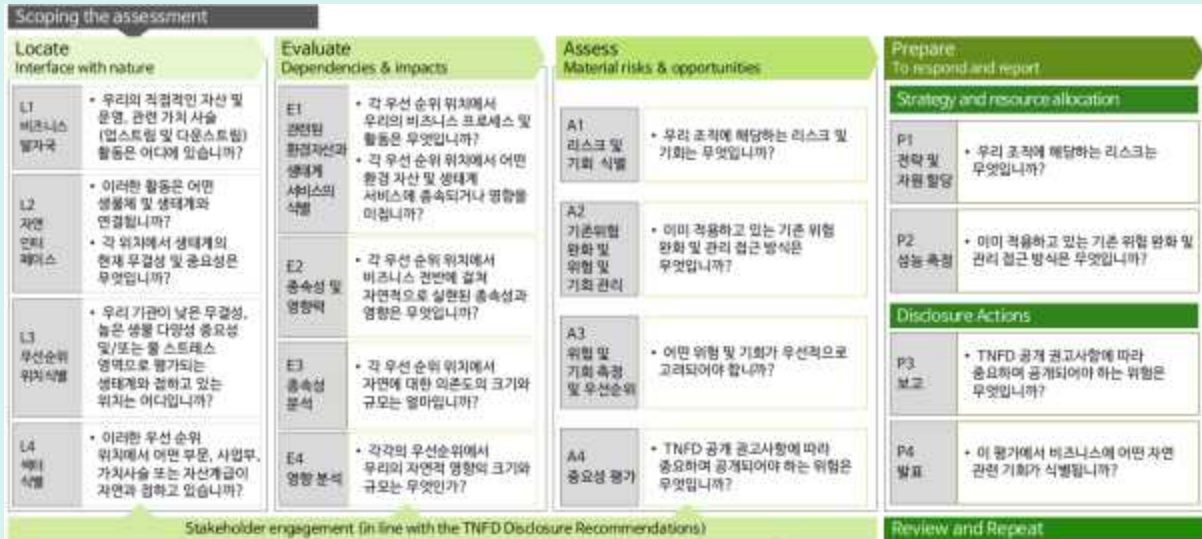
[자료원] What are nature-based solution?: Adapt now report, WRI & Global Commission on Adaptation, 2019; UN; Biodiversity – our strongest natural defense against climate change; IPBES & IPCC: press release – Tackling biodiversity & climate crises together and their combined social impacts. Deloitte analysis based on multiple informations and reports.

유럽은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에 따라 이행 기준서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 Standard)에 E2(오염), E3(물과 해양자원), E4(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5(자원사용과 순환경제) 등 무려 4개의 기준서를 자연자본과 관련된 주제로 포함시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화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15회 당사국총회에서 수립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인 ‘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상의 30% 보호지역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의 목표에 대한 실천을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비전 및 목표’를 발표(‘23.12월)하며,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지구의 자연자본 지키기를 실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자연자본 리스크 완화를 위해 TNFD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자료원] Deloitte Analysis based on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nature-related issues: the LEAP approach, TNFD'.

자연자본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연자본 관련 리스크는 기업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자재 채굴,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희토류는 전자장비,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반면, 희토류 채굴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토양 침식, 수질 오염, 산림 파괴 등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위협
- ② 전자 부품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 물질과 중금속은 폐기물로 배출될 때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물질들은 특히, 수계로 유입될 경우 수생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다양한 생물종에게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
- ③ 전자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은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토양과 수계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음

위와 같은 자연자본 관련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자연자본 리스크 평가를 시일 내에 시작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핵심 주제 트렌드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고객사의 평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 편입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TNFD 권고사항과 LEAP 접근법 가이드를 하루 빨리 숙지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전반에 자연자본의 주제를 담은 전략을 재구성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망 더 알아보기

EU 그린딜 추진 현황 분석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그린딜은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통해 유럽을 세계 최초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 EU 기후법 채택을 통해 '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 '24년에 '40년까지 탄소 배출량 90% 감축 등 중간 목표를 발표하였다. EU 그린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자.

1. 공급망 측면

공급망 內 환경 피해 및 인권 침해 여부 모니터링 강화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개요) **全**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 시행 후, 관련 내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으로, 유럽의회에서 '24.4월 최종 통과 되었으며,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발효 예정
- (경과) 법안계획 발표('20.4월) → 지침 초안 발표('22.2월) → 잠정 합의('23.12월) → 의회 본회의 통과('24.4월) → 발효(예정)
- (적용 대상) 연 매출 4.5억 유로, 직원 수 1,000명 초과 기업으로 기존 합의안(1.5억 유로, 500명) 대비 완화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세부 기준
역내	대기업(일반)	직원 수 1,000명 초과 및 全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상기 대기업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으나,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초과하고, 全 세계 순매출 8,000만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역외	대기업(일반)	EU 內 순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상기 대기업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으나,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초과하고, EU 內 순매출 8,000만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 (범위) 공급망(Chain of Activity)을 생산·유통·운송·저장으로 한정
- (적용 시점) 발효일부터 기업 규모별 3~5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되며 '27년부 적용

지속가능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개요) EU의 지속가능보고지침 세부 기준을 담은 공시 표준으로,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표준에 맞춰 보고 의무
- (적용 대상) 대기업·상장기업·역외기업에 적용되며 '25년부터 공시의무 부여

지속가능보고지침 적용 대상

회계연도	공시연도	적용 대상
2024년	2025년	▶ 기존 비재무 보고 지침(NFRD) 적용 기업 및 대형 상장기업
2025년	2026년	▶ 기타 대기업 및 대형 상장기업
2026년	2027년	▶ 상장 중소기업 및 기타 상장 신용기관·보험사
2028년	2029년	▶ 역외기업(역내 순매출 규모 1,500만 유로 이상이고, 역내 소재한 자회사가 대기업·상장기업 또는 현지법인 매출이 4,000만 유로 이상)

* 대기업 직원 수 250명 이상, 자산 2,500만 유로 이상 중 2개 요건 충족 기업

(공시 내용) 일반 2개 및 ESG 10개 항목으로 구성

지속가능보고지침 공시 항목

구분	적용 대상
일반	▶ 일반 요건(ESRS 1), 필수 공시 사항(ESRS 2)
ESG	▶ 기후변화(E1), 환경오염(E2), 수자원·해양자원(E3), 생물다양성·생태계(E4),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E5) ▶ 자체인력(S1), 근로자(S2), 지역사회(S3), 소비자·사용자(S4) ▶ 비즈니스 수행(G1)

- ▶ 이중 중대성(Dobule Materiality) 평가를 적용, 기업이 ESG에 미치는 외부적 영향 및 ESG가 기업에 미치는 내부적 영향 등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
- ▶ 생물다양성 전환계획, 인력 관련 지표 등 일부 항목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보고 가능

2. 환경 측면

상품 생산 시 산림 파괴하지 않음을 증명, 상품 생산 시 탄소배출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입 의무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 Anti-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 ▶ (개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의 전용·황폐화와 관련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역내 시장 출시·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
- ▶ (경과) 규정 초안 발표('21.11월) → 잠정 합의('22.12월) → 이사회 최종 승인('23.6월) → 발효('23.6월)
- ▶ (주요 내용)
 - ▶ 규제 품목 지정(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및 그 파생 제품 등)
 - ▶ 기업 의무(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 의무, 정보제공 의무 등)
 - ▶ 회원국 및 관할 당국 의무
 - ▶ 국가별 위험도 평가
 - ▶ 제재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개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 (적용 대상)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탄소국경조정

품 목	HS Code
시멘트	▶ 252310, 252321, 252329, 252390, 250700, 252330
전력	▶ 271600
비료	▶ 280800, 2814, 283421, 3102, 3105(일부 품목 제외*) * 제외: 310560
철강	▶ 72(일부 철강류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00, 7318, 7326, 260112 * 제외: 7204, 72022, 72023, 72025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수소	▶ 280410

- (필요 데이터) ▲제조시설 정보, ▲제품 정보, ▲수출 제품의 총 수량, ▲제품의 직·간접 내재 배출량, ▲수출국 탄소 가격 등
- (수정 기한)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내 수정

수입자 제출 및 수정 기한

데이터 확보	제출 기한	수정 기한
'24.4월~6월	'24.7.31일	'24.8.30일
'24.7월~9월	'24.10.31일	'24.11.30일
'24.10월~12월, 이후 분기별 진행	'25.1.31일	'25.2.28일
'25.10월~12월(최종)	'26.1.31일	'26.2.28일

3. 순환경제 측면

제품 수리촉진 공동규칙 지침(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 (개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에코디자인지침과 소비자권리강화안의 수리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
- (목표) 제품의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수리가 필요한 제품의 접근성을 낮춰 교체 대신 수리를 권장함으로써 수리 산업 활성화 및 폐기물 감축
- (주요 내용) 모든 소비재에 제품의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제품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제조사와 수리업체 및 회원국에 수리 관련한 의무 부여
- (적용 대상) 세탁기·청소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휴대폰 등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
- (사후 관리) 법적 보증기간 內 수리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에게 보증기간 1년 추가 제공

출처: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27호('24.05.22)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공급망 소식통

◆ 수출입 물류 애로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한국무역협회는 홍해 사태 장기화와 중국발 물동량 급증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며 수출입업체의 해상 물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회원사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접수된 애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별 답변드릴 예정이며 필요시 유관기관 건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애로신고센터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 사태 정상화 시까지
- 신고 방법 : [\[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후 양식 작성하여 제출

☐ 애로접수 세부사항

대 상	➤ 회원사 및 수출입기업	
애로 유형 * 복수 응답 가능 *외 유형 기타 표시 가능	① 선복 및 컨테이너 확보 차질	➤ 선복 확보 및 선복 부킹 차질 ➤ 컨테이너 확보 어려움
	② 비용 부담 증가	➤ 해상운임 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 ➤ 운임 외 각종 부대할증료 비용 부담
	③ 운송 지연	➤ 운송 지연으로 인한 납기 지연 문제
접수 필요 정보	➤ 이름, 핸드폰, 이메일 주소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애로 구체적 정보, 요청/건의 사항	

☐ 문의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5935 / ✉ kscn@kita.net

글로벌 경제지표 ['24.6.18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6/14	6/17	6/18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1.50	1,379.30	1,381.20	1,381.10	△0.01%	7.23%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76.90	1,378.80	1,378.70	△0.01%	7.14%
₩/CNY	181.44	181.37	185.10	189.12	189.50	190.34	0.44%	4.95%
₩/¥100	945.56	912.25	888.91	872.09	877.78	874.72	△0.35%	△4.11%
¥/U\$	133.73	141.19	149.79	158.16	157.35	157.89	0.34%	11.83%
U\$/EUR€	1.0617	1.1105	1.0835	1.0725	1.0693	1.0725	0.30%	△3.42%
CNY/U\$	6.9630	7.1092	7.1938	7.2553	7.2559	7.2557	△0.00%	2.06%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47.7원, (₩/¥100) 889.7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6/17	6/18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2.34	83.35	1.0	13.0	6.3
					1.2%	18.5%	8.1%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7.65	106.15	△1.5	8.8	△34.4
					△1.4%	9.0%	△24.4%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477.00	△51.0	1613.5	950.0
					△0.5%	20.7%	11.2%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420.50	7.0	359.0	92.0
					0.3%	17.4%	3.9%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7,080.00	16,990.00	△90.0	1105.0	690.0
					△0.5%	7.0%	4.2%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6/13	6/14	6/17	6월(~1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87	1.85	1.84	1.88
(%, YoY)	29.9%	△23.0%	△14.8%	△3.6%	6.6%	23.5%	22.2%	21.4%	24.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7	6.37	6.37	6.37
(%, YoY)	14.7%	10.7%	△2.3%	△1.9%	△0.7%	0.3%	0.3%	0.4%	0.6%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12/30('22년)	12/29('23년)	5/31	6/7	6/14	전주비(6/7)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3044.77	3184.87	3379.22	6.1%	92.0%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12/23('22년)	12/22('23년)	1/1	6/12	6/13	6/14	6/17	전주비(6/14)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836	1942	1948	1948	0.0%	△7.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02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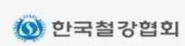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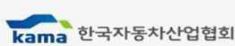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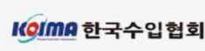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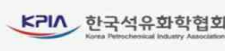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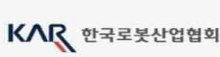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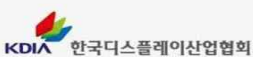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